

# 痺證과 痛風

- 附 五積散活用例 -

朴 商 明



關節이 紅腫하여 붓고 痛症이 甚하면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痛風이라한다 痛風의 用語는 西洋醫學의 用語로서 韓方醫學에서 그 論理媒體가 모호하다. 間接적으로 西洋 醫學書籍을 살펴 보면 血管內에 尿酸이 增加한 理由라 한다. 그러나 大體的인 病名으로 보라면 이것은 分明히 關節炎에 속하고 만다. 西洋醫學의 接木에서 보면 韓方의 從屬은 亦是 서의학으로 전가되고 본래의 東洋醫學의 本質은 稀少하여질 것이며 韓藥만의 專門인

우리 韓藥業士는 西洋醫學의 原理에 맞추어서 投藥은 絶代 不可能할 것이다. 또한 우리 韓藥의 基本原理는 五色과 五味로서 處方을 構成하고 있으며 西洋의 執病論理로서 韓藥을 投藥한다는 것은 그 基本을 잃고마는 妄想일 것이다

## 一. 痺證

痺證이란 風, 寒, 濕, 熱, 等の 外部가 人體에 侵襲하여 經絡을 막아서 氣血運行이 어렵기 때문에 筋肉과 筋骨과 關節部位에 酸痛과 麻木의 證과 屈伸不利가 發生하며 혹은 關節이 紅腫 發熱 등 臨床에서 이런 病症을 볼 수 있다. 古代 醫學書籍에서도 이 痺證을 잘 觀察하고 詳細하게 記錄한 것이 있다 卽 <素問 痺論篇>에서 痺證의 病因과 發病 原理와 症候分類와 병의 變化 등의 內容을 高루 論述하고 있어서 오늘의 痺證의 基礎가 되고 있으니 尊敬心이 갈만하다 病論의 原因 說明을 보면 “所謂 痺者는 各各 그 時期에 따라서 風, 寒, 濕氣를 重感하였다” 하고 證을 分類하여 說明한 것을 보면 “風氣가 勝하면 行痺라 하고, 寒氣가 勝하면 痛痺라 하고, 濕氣가 勝한 것을 着痺라 하였다.

<金匱, 中風歷節篇>에서는 歷節이라 하였는데 역시 歷節風은 痺證과 같은 類를 說明하고 있으며 古典에 모든 記錄은 風寒濕 三氣가 合成된 病이라고 수많은 原典들은 기록하고 있다

## 二. 病의 原因과 증은

痺證 重要한 原因은 正氣가 不足하여 風, 寒, 濕, 熱 邪氣가 感受(외부의 자극을 감각신경을 통해 받아들이게)되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內因으로서 痺證의 發生한 基礎이다 本來 體質이 虛弱하고 正氣가 不足하면 腠理가 不密하고 衛外가 不固하면 痺證이 發生할 수 있는 原因을 內在하고 있다. 이로 因하여 쉽게 外部가 侵襲하기가 쉽고 風, 寒, 濕, 熱의 邪氣를 感受하고 肌肉과 關節 經絡 등이 막히면 쉽게 痺證이 形成된다 風寒濕邪가 人體에 侵襲되는 主된 原因 중 濕한 地域에 거처하거나 물을 자주 건너고 비를 많이 맞았거나 氣候가 急變하여 심한 冷熱의 交差 등으로 인하여 人體의 虛를 利用하여 侵襲되어서 經絡과 關節에 머물고 하여 氣血이 痺阻하면 痺證이 成立한다 邪氣의 感受의 程度에 따라 臨床的인 差異가 있으며 風氣가 勝하면 行痺라 하고 寒氣가 勝하면 痛痺라 하고 濕氣가 勝하면 着痺라 하는데 風은 性質이 자주 變化하여 游走不定이라 하여 行痺라 하고, 寒氣는 凝澁하여 氣血이 凝滯不通하면 疼痛이 極熱하여 痛痺라 하고, 濕의 성질은 粘滯重着하여 肌膚와 關節이 痲木과 重着하고 痛症이 한곳에만 있기 때문에 着痺라 한다.

熱邪에 感受되거나 혹은 鬱症이 오래되어 化熱하거나 風熱의 邪가 濕과 서로 어울리면 風濕熱이 합하여 患疾이 된다. 本來體質이 陽盛 혹은 陰虛有熱하여 外邪를 感受 후 에 化熱하고 혹은 原因이 風寒濕痺가 오래되어도 不愈하고 邪氣가 經絡 關節에 머물러서 熱로 變化하고 關節 등에 紅腫 疼痛의 症勢가 出現하고 發熱 등의 症狀이 있기 때문에 熱痺라 한다

風濕熱痺를 卽 痛風이라 할 것이다.

關節이 疼痛하고 局部的인 紅腫과 痛症을 참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痛處가 一介 혹은 여러개의 關節 등에 發生하여 惡風과 口渴과 煩悶과 不安 등 全身症狀을 同伴하는 수도 있다 熱邪가 經絡과 關節에 壅滯하여 氣血이 鬱滯不通하면 局部에 紅腫과 發熱을 이룬다. 그러면 屈伸을 할 수 없고 熱이 盛하여 津液을 傷하고 위에 全身症狀이 發生하고 다른 痺證에 比하여 병변이 急하고 全身症狀이 뚜렷하며 病의 情況에 變化가 많다.

熱痺에 基本處方으로는 白虎湯合桂枝湯, 靈仙除痛飲, 疎風活血湯, 모든 痺證治療에 舒筋立安散(만병회춘)을 通用하면 그런대로 效果를 期待할 것이다 民間療法으로는 車前葉을 차같이 煎飲하면 效果가 크다

### 三. 結論

이렇게 우리 韓醫學的인 原因으로 볼 때에 洋方의 醫學原理에 絶對的인 病의 基礎를 同一視하고 治療에 臨한다면 韓藥으로서 治療不可란 用語가 나올 것이다. 즉 洋方醫學的인 投藥은 消炎鎮痛에 力點을 둔다면 韓方醫學的인 治療原則은 祛風除濕과 清熱通絡의 基本을 볼 것이고 어찌면 우리의 韓方的인 投藥基本效果를 期待함이 當然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 - 附 · 五積散 活用例 -

##### 빈도수 잦은 처방중에서 오적산은

한가지 처방으로 여러개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만병통치 약이 아니랄 수가 없다 한방의 科學的이 못된다는 데도 이런 대목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韓方 處方을 보면 頻度數가 가장 많은 것이 雙和湯과 十全大補湯 歸脾湯 오적산은 우리 韓藥界에서 이 五積散에 대한 逸話가 수없이 많이 나돌고 있다 一平生을 오적산만 쓰는 분들도 있다 하여 姓氏를 붙여서 경주의 崔氏가 五積散을 많이 썼다고하여 최오적이라 별명하고 남산 밑 허씨 약국에서 오적산을 많이 사용하였다하여 許五積이란 별명이 있는것도 오적산이 이름만큼이나 그 效力이 多樣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오적산이 얼마나 그 內容을 많이 內包하고 있을까? 이 處方은 原來에 和濟局方에서 記錄한 處方이며 治療目的은 少陰傷寒 및 外感風寒과 內傷生冷과 身熱無汗하고 身痛頭痛하며 項背가 拘急하고 胸滿惡食하며 嘔吐腹痛과 寒熱往來와 脚氣腫痛과 冷秘寒疝과 寒虐과 惡寒無汗과 婦人經水不調 등에 有效하다고 記錄을 하고 있다 이 證들은 모두가 寒濕으로 出現한 症勢들이다.

處方을 보면 蒼朮, 陳皮, 厚朴, 當歸, 川芎, 芍藥, 茯苓, 桔梗, 枳殼, 半夏, 麻黃, 乾薑, 肉桂(重表者用 桂枝) 甘草 등 여기에 生薑과 蔥白을 넣어서 煎藥한다.

다른 한 방법으로는 肉桂 白芷 枳殼 陳皮를 除하고 나머지 약은 慢火炒하여 식힌 다음 肉桂와 白芷 등을 넣어서 煎藥하면 이름을 熟料五積散이라 하고 炒를 한 理由는 溫散을 도우기 위함이다.

有汗에 蒼朮과 麻黃을 제거하고 氣虛하면 枳殼과 桔梗을 제하고 人蔘 白朮을 가하고 腹痛에는 오수유를 가하고 胃腸이 冷하면 加煨薑하고 陰證傷寒과 四肢冷과 虛汗하면

## ■ 비증과 통풍

附子を 가하고 婦人調經에는 醮艾葉하여 服用하고 이와 같이 오적산은 症勢에 따라 加味減味해서 多樣하게 活用할 수 있다.

이 처방은 陰陽表裏의 通用劑로서 處方중에 麻黃과 桂枝는 解表散寒하고 甘草와 芍藥은 和中止痛의 效가 있고 蒼朮과 厚朴은 平胃土而 祛濕하고 陳皮와 半夏는 順氣除痰하고 川芎 當歸 乾薑 白芷는 血分에 들어가서 寒濕을 祛하고 枳殼 桔梗은 利胸膈而 清寒熱하고 茯苓은 瀉熱利水하며 寧心益脾하고 이로써 解表와 溫中과 除濕의 劑로서 祛痰과 消痞와 調經의 處方이라하고 一方은 變方에 따라 수많은 病을 治療할 수 있다 한다. 本方의 能히 寒積과 食積과 血積과 氣積과 痰積 등 五積을 散하고 王海藏이 말하기를 桂枝 麻黃 芍藥 甘草는 各半湯이며 蒼朮 厚朴 陳皮 甘草는 곧 平胃散이며 枳殼 桔梗 陳皮 茯苓 半夏는 또한 枳桔半夏湯이라하고 여기에 川芎과 當歸를 합하면 血을 다스리고 乾薑과 厚朴을 加함은 解表溫中지제로서 消痞調經의 良方이다 비록 內寒과 外感과 表裏 등으로 分類하였으나 실은 仲景의 表裏를 治하는 麻黃 桂枝 乾薑 附子의 方이 아니다 오직 이것은 變方을 하여서 通用하여야 할 것이며 陶節庵은 夫病이 身熱頭痛과 初期怕寒과 腹痛과 嘔吐와 泄瀉와 蹠臥 沈黙不渴과 脈이 沈遲無力하면 모든 사람은 陰證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發熱과 面積과 煩躁와 옷을 벗어던지고 脈大하면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런 證을 陽證으로서 投藥에 주의해야 하고 陰藥을 준다면 死亡할 수도 있다. 陰證을 알지 못하고 熱이 있고 없음을 모르면 脈이 浮沈遲 大小와 指下에 無力하면 五積散 한번에 表裏의 寒을 通解하며 안으로 寒이 있으면 반드시 薑附로서 溫하게 하고 五積散 合敗毒散하면 五積交加散이라하여 寒濕으로 因한 身體重痛과 腰脚酸痛을 다스린다.

이렇게하여 광범하게 오적산을 우리는 처방의 이해를 불문하고 어떠한 병증에서도 적용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미와 응용여하에 따라서 치료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217 인화당 한약방 ☎ 0351-856-0014)